

New Round 준비현황 및 우리의 대응방안

<본회 통상협력과>

본고는 지난 6월 11일, 12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문막 오크밸리에서 개최된 「'99 전자산업 통상전략 포럼」에서 외교통상부 WTO과 김병섭 서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편집자)

I. GATT와 WTO

1. GATT체제의 역사적 배경

GATT는 1945년 Bretton Woods 협정의 결과로 IMF, IBRD와 함께 탄생하였다. 1948년 하바나에서 채택된 '국제무역기구를 위한 헌장' (하바나헌장)의 비준과 이에 따른 ITO의 창설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과도기적인 조치로 하바나헌장의 일부를 분리, 48년 1월 1일 발족하여 95년 1월 1일 WTO의 일부로 편입되기까지 잠정협정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GATT는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하였으나 47년간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사실상의(de facto) 국제기구로서 관세를 중심으로 한 무역장벽제거에 기여하였다.

2. 국제무역규범으로서의 GATT의 기본원칙

- 관세인하
- 수입제한의 철폐
- 무차별 최혜국대우(MFN)
- 내국민대우
- 공정무역

3. GATT체제의 발전 (8차례의 라운드)

GATT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걸친 다자간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1차부터 6차까지의 초기활동은 관세인하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6차 케네디라운드부터 비관세에 관한 규율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4. GATT와 WTO의 차이

○ 법적기초

GATT는 하나의 규정의 집합체 또는 다자간협정이었으며, 기관으로서의 기초를 가지지 못하였고 임의적인 기구로서 사무국을 운영하였다.

이에 반해 WTO는 법인격을 가진 영속적인 국제기구이며 그 자체의 사무국을 가지고 있다.

○ 포괄범위

GATT는 상품무역에만 적용하나 WTO는 상품에 추가하여 서비스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도 포괄하고 있다.

○ 회원국의 규범수락방법

GATT는 1948년에 출범한 다자간협정의에 1980년대까지 많은 새로운 협정(MTN협정들)들이 복수국간 형태로 추가됨으로써 본질적으로 선택적이다.

그러나 WTO는 일부 복수국간 협정(정부조달협정, 민간항공기협정)외에는 모두가 다자간협정이다.

II. UR협상의 의의와 주요내용

1. UR협상의 출범배경

1980년대 들어 신보호주의적 조치들의 등장으로 국제무역질서가 점차 혼란해진 데 비해 이를 관리할 GATT의 규범과 제도는 취약하였다.

GATT의 규율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점차 국제무역의 주요한 부분 규율에 실패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투자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 각국시장을 개방하고 이에 필요한 국제규범을 만들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2. UR협상의 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써 무역장

벽의 대폭 완화와 함께 자유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3. UR협정의 주요내용

UR협정은 항구적이고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를 수립하였으며 상품의 관세인하 및 무세화를 통해 기존의 관세장벽을 대폭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회색조치 등 비관세장벽도 대폭 완화하였다.

또, 각종 수량제한 조치로 보호되어 왔던 농산물에 대해서도 일단 관세화를 통해 WTO 체제내로 끌어들이므로써 농산물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으며 다섬유약정(MFA)에 의해 규제되어 왔던 섬유류도 10년간에 걸쳐 완전히 WTO 체제내로 통합함으로써 섬유류 무역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각국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많았던 기존의 반덤핑·상계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도록 규범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자의적인 무역규제의 여지를 축소하였으며 최근 국제무역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무역 분야에 대해 별도의 무역규범을 새로이 제정하고 이 분야의 시장개방계획을 작성토록 함으

로써 서비스무역이 확대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수립함으로써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4. UR 타결의 경제적 효과

UR의 부정적인 효과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인한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등의 국내시장 잠식과 보조금 등의 규제강화로 인한 산업지원정책상의 제약 정도이나 UR은 대외지향적인 경제성장을 지속시켜 가야하는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근거로는 WTO를 중심으로 세계경제통합이 촉진되면서 시장이 다변화되고 기존시장에서의 무역장벽이 완화되는 등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시장개방에 따른 대외경쟁의 확대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도 향상되었다.

또, 무역질서의 규범화와 명료화, 합리적인 분쟁해결절차 등으로 우리기업의 국제영업활동이 개선 되었다.

우리나라는 GATT가 제공한 국제무역환경에 힘입어 전후의 폐허로부터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UR협상에서도 가장 큰 수혜자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세계경제 개선효과

○ OECD 분석(1992)

2002년 기준으로 1,950억불의 순소득 증대가 예상되며 이중 910억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에 귀속될 것이다.

○ GATT 분석

2005년 세계무역이 연간 7,550억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우리나라의 159억불 등 동아시아 및 동남아 개도국의 무역증가가 1160억불로써 가장 많다.

우리나라경제 개선효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3)

향후 10년간 총225억불의 수출증대가 기대되며 같은 기간중 총 72억불의 공산품 및 8억불의 쌀 등 추가로 수입이 늘어난다.

○ 산업연구원(1993)

제조업분야에서 총50억불의 추가수출 증대 및 총5억불의 추가수입증대로 45억불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 한국개발연구원(1993)

향후 5년간 연평균 1%내외의 추가수출증대 및 0.3~0.6%의 추

가수입 증대로 0.4~0.7%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

III. New Round

1. 논의배경

UR협상에 따라 95년 1월 1일 발효한 WTO협정에서는 농산물·서비스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2000년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이러한 점에서 농산물·서비스는 소위 Built-in Agenda (BIA), 즉 '기설정의제'로 부름)

96년 하반기 이후 EU, 캐나다, 호주 등이 2000년 협상에서 BIA를 좀더 확대하여 공산품 등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는 다자간무역협상("New Round" 또는 "Millennium Round")으로 출범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있다.

그 결과 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further liberalization sufficiently broad-based)' 문제를 포함한「WTO의 향후 작업계획」에 관하여 논의를 개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WTO차원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을 공식화하였다.

또 99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현재 일반이사회 차원에서 진행중

인 차기협상의 범위, 방식, 일정 등에 관한 준비작업 결과를 종합하여 각료선언을 채택하고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러한 뉴라운드 출범논의의 명분은 대체로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 세계무역 확대를 위한 각국시장의 추가개방, 다자차원의 해결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무역관련 이슈들의 대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쌍무주의와 지역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WTO에 의한 다자적 질서를 보완하고 세계무역 신장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이며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겨냥한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initiative가 필요하다.

* 뉴라운드의 강력한 지지자인 호주가 99년 5월 OECD에 제출한 '세계무역의 개혁' 보고서에서는 전세계의 무역장벽을 50% 제거하면 그 경제효과를 4000억불을 넘고, 완전 제거하면 75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

WTO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중 하나는 Globalization의 진전 및 상호의존성의 증대에 따른 투자, 경쟁정책, 환경 등 무역외 분야 관련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2. 논의동향

○ WTO에서의 뉴라운드 준비작업일정

- 98. 9월~99. 2월(제1단계):예상 의제 발굴
- 99. 3월~99. 7월(제2단계):의제 채택에 대한 합의 형성
- 99. 9월~99. 11월(제3단계):각료선언문의 구체적 문안 작성

○ 뉴라운드 의제에 관한 주요국 입장

준비작업과정에서는 차기협상의 범위(scope), 방식(structure), 일정(time-frame)이 논의대상이나 역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협상범위, 즉 뉴라운드 의제이다.

QUAD국가 중에는 EU와 일본이 포괄적 협상(comprehensive negotiations)을 지지해 온 반면, 미국은 정보기술협정(ITA)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전통적으로 부문별 협상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태국, 스위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체코, 헝가리, 모로코 등 14개 중견국가들은 대표적인 포괄적 협상 지지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Friends of a New Round"그룹을 결성하여 2000년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국제여론을 환기하고 정치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중)

반면, 인도, 이집트, ASEAN 등

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이행, 특히 농산물 및 섬유분야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차기 협상도 개도국의 이행능력을 고려하면서 BIA인 농산물·서비스 후속협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뉴라운드 협상방식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 EU, 일본 등 대부분의 미국의 일괄수락방식(single undertaking)을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런 방식이 협상기간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카나다는 분야 및 이슈들을 협상 성격 및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분야 및 이슈끼리 묶는(clustering)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협상범위와 연계하여 결정될 전망이다.

○ 협상기간

초기목표로 일단 3년 정도 설정될 예정이다.

WTO 논의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며 99년 5월말 OECD 각료회의성명에서도 3년 목표시한을 명기하고 있다.

3.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입장

뉴라운드는 다자무역체제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통상분야에서 새로이 제기된 주요 이슈들을 추가하여 충분히 광범위한 범위와 형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국제경제현실과 관련한 전략적 측면에서도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질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뉴라운드에 적극 참여해야 할 입장이다.

즉, 4대강국처럼 세계통상무대에서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 가입국도 아닌 중규모의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뉴라운드를 통한 무역질서의 다자화와 무역규칙의 규범화가 최선의 전략이다.

무역질서의 다자화

무역질서의 다자화는 지역협정 가입국들이 누려 왔던 국경장벽에 해당하는 가격 우위와 원산지·표준 등 각종 비관세장벽 위위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협정 역외국의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

특히 공산품 시장접근분야의 경우 향후 우리의 주요교역품목이 관세요인에 기인한 가격경쟁력 변화가 중시되는 산업보다는 비가격경쟁력이 중시되는 산업분야로 옮겨갈 전망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통상정책은 협소한 국내 시장 보호를 넘어 장기적으로 세계시장 확대에 따른 이득을 겨냥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역질서의 규범화

무역규칙의 규범화는 예측이 어렵고 개별국가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어려운 양자질서보다는 투명한 규범에 바탕을 둔(rules-based) 안정적인 다자질서에 의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제위에서 향후 협상대상이 되는 새로운 통상의제는 가급적 그 논의결과를 협정 등의 형태로 규범화하는 것이다.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의 투명성 등)

이를 통하여 규범이 결여된 분야에서 특정회원국이 자국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다자무역질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IV. 지역주의

■ 지역주의와 다자무역체제

2차대전후 전후 복구를 위한 유럽국가들간의 상호협력과정에서 시작된 경제통합이 60년대 이후 널리 확산되었으며, 특히 80년대 이후 GATT를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 자유무역주의가 회원국

간 이해대립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국지적인 자유무역 실현을 위하여 점차 크게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경제질서속에서 이러한 경향을 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역협정내 무역이 세계무역의 50%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GATT 제24조는 MFN원칙의 예외로서 일정한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국가간 경제통합을 인정하고 있다.

지역협정들의 개방성과 비차별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WTO규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는 다자협상방식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어 자유화의 속도가 매우 제한적이나 경제통합은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간의 쌍무협상으로 추진되므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이점이다.

V. 뉴라운드에서의 성공을 위한 과제

- 총체적 다자협상력 제고
- 국내제도의 국제통상규범과의 조화
- 국가위상에 걸맞는 책임분담과 기여
- 민간의견 수렴 강화 및 홍보

VI. 맺음말

뉴라운드에서의 적극 참여

고도로 통합된 세계경제하에서 세계가 당면한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global management가 필요한 바, 이러한 점에서 세계경제차원에서 뉴라운드 출범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로서도 진정한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체질을 강화해야 하며, 뉴라운드는 우리기업들의 무역활동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각 부문의 제도개혁과 개방정책의 성과에 따라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뉴라운드는 그동안 우리가 표명해온 시장경제원칙과 global standard와의 조화노력이 대외적으로 검증받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뉴라운드를 통하여 우리의 통상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의견개진 등 적극 참여 중)

**한국경제와 지역경제통합,
그리고 지역주의의 활용**

국가간 또는 경제주체간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어 폐쇄적인 경제운영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과 IMF체제 돌입으로 개방화 및 국제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다.

지역협력체의 확장과 결속강화

추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이러한 지역주의 추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국경제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WTO/GATT를 통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의 추세를 거부하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주의에 대한 규율강화와 다자무역체제의 우위를 강조

하여 지역주의로부터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러한 다자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주의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의 소극적인 활용형태가 APEC이며, 이의 적극적인 활용형태는 한-칠레, 한-일 FTA 추진을 들 수 있다.

「전자부품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판매 안내

발간목적

- 21세기 전자부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마인드 범업계 전파

주요내용

- 21세기 전자부품산업 발전 방안 제시
 - 정부의 지원 대책
 - 기업의 경영전략
- 국산화가 시급한 부품 및 향후 유망부품
 - 개발유망부품 : 코넥터용 CU계 합금재료, PCS중계기용 IF대역 통과 필터 등 30개
 - 국산화 대상부품 : Duplexer, Saw filter(IF) 등 66개
 - 선진 요소기술 및 개발목표 : PCB, 센서 등 31개
- 선진국의 주요 전자부품별 기술동향 및 개발과제 등
 - 33개 주요 부품별 2000년대 기술개발 동향 및 개발과제
 - 차세대 유망기기 (D-TV, 휴대용 PC, 이동통신기기)별 주요 부품 소개 등

판매금액

- 본회 회원사 : 20,000원
- 본회 비회원사 : 30,000원

<자료문의>

본회 자료실 : 55-0941(244)